

후기 중세국어 사잇소리에 대한 논점들

1

사잇소리에 관한 논의는 고대국어 시기에서 현대국어 시기까지 방대한 시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대국어 및 중세국어 시기의 사잇소리에 대한 연구는 사잇소리의 음가와 형태,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에 집중되어 왔고, 서양의 이론을 접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 및 현대국어 시기의 사잇소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학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교육학, 음성학 등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복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사잇소리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사잇소리의 특징이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후기 중세국어 사잇소리에 관한 연구는 한정된 자료와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현대국어의 그것보다 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는 크게 사잇소리의 음가와 기능을 밝혀내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사잇소리의 기능에 관한 연구는 음운론적 관점과 통사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며, 후대에 와서는 변형생성문법의 적용 등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 사잇소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거의 모든 가능성의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연구사적인 재검토는 전철웅(1990)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도 기존의 논의를 제 것인 것처럼 답습하거나 선행 연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 이미 밝혀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연구를 되풀이한 다던지 중구난방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학자들 간의 후기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의 양상과 언어학적 특징에 대한 견해를 비교 및 대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고찰은 앞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사잇소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집약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사잇소리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사잇소리 연구 중에서도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논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잇소리를 정의할 때 사용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관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4장 이하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논의들을 분류에 따라 자세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2

기존 연구에서 사잇소리를 가리키는 말로 다양한 용어를 제시한 까닭은 그 학자가 사잇소리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사잇소리에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

- ㄱ. 삽입자음(1)
- ㄴ. 사잇글자(1)
- ㄷ. 사잇소리(1)
- ㄹ. 사이시옷(‘사이ㅅ’ 또는 ‘-ㅅ’)(4)

(1ㄱ)은 사잇소리 현상의 결과로 문헌에 드러난 자음을 가리키며, (1ㄴ)과 (1ㄷ)도 마찬가지로이다. (1ㄷ)은 이와는 다르게 사잇소리 현상을 지칭한다. (1ㄱ)은 두 개의 어사가 모여 하나의 통합을 이룰 때, 두 어사의 접합부에 삽입되는 자음이라는 뜻을 지닌다. (1ㄴ)은 (1ㄷ)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복합어 또는 복합적인 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덧생기는 소리를 뜻한다. (1ㄷ)은 현재에도 쓰이고 있는 말로, 사잇소리 현상 중에서도 ‘ㅅ’으로 표기된 자음을 일컫는 데에 쓰인다.

일부 학자들이 사잇소리 현상을 ‘사이시옷’과 다른 의미로 정의한 이유는 연구의 자료로 삼았던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 중에서 『龍飛御天歌』와 『훈민정음』에서의 사잇소리 표기가 ‘ㅅ’뿐만 아니라 ‘ㄱ, ㄷ, ㅂ, ㅍ, ㅎ, ㅅ’의 다양한 형태로 쓰였고, 이후의 몇몇 문헌에서도 아주 적은 예지만 혼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이시옷’이라는 용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위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잇소리를 가리키는 말로 (1ㄷ)을 사용하였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¹⁾ 고대국어 및 전기 중세국어의 ‘叱’, ‘尸’, ‘斯’ 등의 표기를 통해 ‘ㅅ’이 사잇소리의 근본적인 형태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ㅅ’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사잇소리를 ‘ㅅ’의 변이표기형으로 삼는 것이다.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가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한정적인 소수의 문헌을 제외하면 모두 ‘ㅅ’으로 통일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어온 이유도 있다.

각기 다른 논의를 살펴다보면 어떤 학자들은 앞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위와 다른 경우가 있고, 사잇소리 표기와 사잇소리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한 가지로 혼동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잘 고려하지 않고 현대적 관점에서의 사잇소리로 바라보거나 앞서 세운 정의로만 바라본다면, 선행 연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큰 착오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에 앞서 학자들 개개인이 제시한 사잇소리의 개념 범주를 파악하고, 이를 어떠한 용어로 정의하였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사잇소리 현상 또는 표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잇소리’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이시옷’의 용어는 ‘사잇소리’ 중에서 ‘ㅅ’으로 표기된 것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사잇소리의 기능에 대한 견해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2)

1) 특히 통사론적인 관점의 초기 연구에서는 속격의 기능으로 사잇소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의’와 치환이 가능한 사이시옷 표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에 대해서도 ‘ㅅ’의 변이형으로 처리하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 ㄱ. 사잇소리는 선행 음절의 발음을 미과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 ㄴ. 사잇소리는 문법적 표지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2ㄱ)은 음운론적인 관점에서의 가장 주요한 견해이고, (2ㄴ)은 통사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다. (2ㄴ)은 다시 속격 표지로 바라보는 견해와 속격이 아닌 다른 문법적 표지로 바라보는 견해로 나뉜다. 혹자는 속격 기능이 문법적 표지의 하위 범주일 수 있는데 굳이 왜 범주를 나누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기에 ‘속격’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잇소리 연구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후대에 와서 속격 기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속격이 아닌 다른 문법적인 표지로 사잇소리의 기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관점에 따라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또는 통사의미론적 기능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나,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고 두 관점을 통합하여 사잇소리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사잇소리가 초기에는 (2ㄱ)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었으나 특정한 시점에서 (2ㄴ)의 기능이 생겨나 중세국어 시기에 두 기능이 공존하다가 후대에 와서 (2ㄴ)의 기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사잇소리가 비록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 본질적으로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은 그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는 위의 제시된 주장들의 반례를 포용하는 통합적인 하나의 정의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한계점을 통찰할 수 있는 비판력이 필요하다. 4장 이하에서는 각각의 주장들을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특히 음운론적 관점과 관련된 4장에서는 사잇소리의 기능뿐만 아니라 음가와 관련된 연구사적 고찰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잇소리와 관련된 음운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3)
- ㄱ. 사잇소리의 기능에 관한 연구
- ㄴ. 사잇소리의 음가에 관한 연구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는 1950년대 전후부터 구조주의 음운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잇소리의 문법적 기능에 관련된 연구와 논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해왔다. 사잇소리의 음가를 밝혀내고자 한 연구는 특성상 음운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한 연구이지만 (3ㄱ)의 연구보다 늦은 시기에 발전되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후기 중세국어의 음운 구조와 그 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당대의 음가를 재구하려는 노력이 일어나면서 사잇소리의 음가 재구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음성음운론 및 생성음운론의 유입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ㄱ)에 관련된 주요 견해를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다.

(4)

- ㄱ. 사잇소리는 선행 음절의 발음을 미파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 ㄱ'. 사잇소리는 후행 음절 다음의 평음을 된소리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 ㄴ. 사잇소리는 후행 음절 다음의 유성음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4ㄱ')은 후행 음절이 평음임에 한해서 선행 음절의 발음이 미파화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적 현상이기 때문에 (4ㄱ)의 정의로 대표할 수 있다. (4ㄴ)은 (4ㄱ)만을 사잇소리의 특징으로 가정했을 때 생기는 반례들을 포괄한다.

초기의 연구들은 한정된 문헌에서 사잇소리가 나타나는 예시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그들 간의 공통적인 특질을 찾아내고자 함에 중점을 두었다. 즉, 사잇소리의 표기를 목록화하여 개별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김수경(1947)에서는 『龍飛御天歌』에 나타난 사잇소리가 표기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5)

- ㄱ. 명사+ 사잇소리+ 명사
- ㄴ. 명사+ 조사+ 사잇소리+ 명사
- ㄷ. 명사+ 사잇소리+ 형용사+ 명사
- ㄹ. 동사+ 사잇소리+ 명사

(5ㄱ)과 (5ㄴ), (5ㄷ)은 합성어에서 보이는 사잇소리 표기이지만 (5ㄹ)은 구를 형성하는 사잇소리 표기로 볼 수 있다. 합성어에서 보이는 사잇소리 표기는 속격의 의미를 지닌 ‘의’와 같은 의미의 범주에 놓고 볼 수 있지만, 구 형성에서 일어나는 사잇소리는 그 의미 범주에 전연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통사론적인 입장에서 사잇소리가 속격의 뜻을 지니고 있다면 ‘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사에도 첨가가 가능하고, 이중으로 쓰일 수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반례를 제시하는 초창기 연구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극히 한정된 문헌에 나타난 사잇소리 표기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후기 중세국어 사잇소리의 전반적인 특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형규(1955) 이후부터 중세국어 시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문헌에서 사잇소리의 용례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이루어진 논의들은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위의 (4ㄱ)과 (4ㄴ)의 의견에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논의로는 허웅(1975, 1985) 등이 있다.

반면, 유창돈(1963)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시각인 [ㄷ] 첨가 현상으로 사잇소리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²⁾ 유창돈(1963:25)에서는 “하나의 복합사나 복합사적인 어사를 형성할 때, 그 음운 연결에서 생겨지는 마찰을 메꾸기 위해 생기는 현상”으로 첨가음 현상을 정의하고 있다.³⁾ 이러한 설명은 이제까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2) 이 논문에서는 ‘사잇소리’가 ‘사이시옷’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ㄷ] 첨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개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3) 유창돈(1963:29)에서 15세기 문헌을 통해 추측한 사잇소리 표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5세기 당대의 학자들은 복합사 사이에서의 [ㄷ]첨가음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사이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식하였다.”

대한 표면적인 고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나아간 본질을 탐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조음적인 특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당대의 학자들이 사이시옷 표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잇소리의 기능과 관련된 음운 체계 논의가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통해 음성학적인 이론의 적용으로 사잇소리의 음가를 밝혀내려는 연구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학자들이 제시한 사이시옷의 음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6)

ㄱ. [s] (또는 [tʰ])

ㄴ. [sʰ]

사잇소리 표기가 중세국어 시기의 부분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ㅅ’으로 통일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잇소리, 특히 사이시옷의 음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訓民正音』을 통해 종성 ‘ㄷ’과 ‘ㅅ’의 음가가 구별되었음을 유추하여 본다면, 사이시옷의 음가는 현대국어의 미파화된 발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마다 [s] 또는 [sʰ]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6ㄱ)의 괄호 안에 있는 [tʰ]의 견해는 [s]의 음가를 인정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기도 하고 수용되지 않기도 하지만 음가 추정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견해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를 하였다.

이승녕(1981)⁴⁾에서 음가에 관련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으나, 음성학적인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음가를 밝혀내고자 한 논문은 김차균(1982)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이시옷의 기저 음운을 /s/로, 발음을 [s] 또는 [tʰ]로 추측한 결과로 (4ㄱ)과 (4ㄴ)의 음운론적인 기능이 자연스럽게 생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이시옷의 두 가지 발음이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는 설명은 뚜렷한 발생 규칙을 찾지 못한 데에 따른 변명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통시적인 흐름을 통해 음성학적인 논거를 보완한 김차균(1992)의 논의 또한 앞선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이루어진 박종희·권병로(2010)에서는 앞선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최근에 연구된 음성학 이론을 결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운율음운론을 접목시켜 사이시옷의 발음을 [sʰ]로, 기능을 담화표지로 설정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였다. 그러나 논거의 기준으로 삼은 김노주(2006)⁵⁾의 음성학적인 이론이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론이 드러나 있지 않고, 중세국어 당시의 받침 ‘ㅅ’의 음가에 대한 고찰이 없으며, 현대국어의 시점으로 중세국어를 분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음운론적 입장에서의 연구, 특히 초창기 연구는 속격 어미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통사의미론적 입장에 반대되는 예시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잇소리의 음운론적인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잇소리의 표기 형태가 『龍飛御天歌』, 『訓民正音』 이후 ‘ㅅ’으로 통일되어가는 현상의 이유를 밝혀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연구가

4) 이승녕(1981)에서는 사잇소리가 후행어 두음에 후두협착 자질인 [ʔ]을 가해서 경음을 만드는 구실을 표시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5) 김노주(2006), 「A phonological weight effect on prosodic phrasing in Seoul Korean」,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 한국음운론학회.

진행될수록 음성학의 발달로 사잇소리의 음가를 추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특징도 있다.

그러나 음운론적인 기능을 지니지 못하는 사잇소리의 반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 일부 연구에서 현대국어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 예를 들면 중세국어의 받침 ‘ㅅ’의 음가와 기능의 서술 등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음운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의 논지를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켰다면, 통사의미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잇소리의 문법적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왔다. 주요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5)

ㄱ. 사잇소리(또는 사이시옷)는 속격 어미의 기능을 지닌다.

ㄴ. 사잇소리는 (속격이 아니라 다른) 문법적 표지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사잇소리, 특히 사이시옷이 속격의 기능을 지닌 ‘-이/의’와 치환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이시옷을 제외한 다른 형태들에서 속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시가 보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속격의 표기 형태가 공식적인 문법에서 두 가지나 존재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쉽게 풀 수 없었다.

안병희(1968)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여준 주요한 논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기존 연구의 흐름과 문제를 충분히 인지한 후, ‘-이/의’와 ‘ㅅ’의 차이점을 밝혀내었는데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의’는 (평칭) 유정물 지칭의 체언에 직접 연결되는데, 체언의 모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체된다. (...) ‘-ㅅ’는 (존칭) 유정물 지칭과 무정물 지칭의 체언에 두루 연결되는데, 위치에 따라 여러 교체형을 보여준다.(1968:48)

즉, 중세국어의 사잇소리를 ‘-이/의’와 함께 연결된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제약하는 굴절접사로 본 것이다. 앞뒤 체언을 어구로 보아 합성어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이시옷의 형태를 두 체언을 연결하는 속격어미로 함께 묶어 기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사잇소리가 단순한 속격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어법과도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잇소리 ‘-ㅅ’이 속격조사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ㅅ’이 나타나는 단어의 통합을 합성어로 보아야 될 용례가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홍윤표(1969), 이광호(1976), 이승재(1987) 등에서 이루어진 사잇소리의 속격 기능에 대한 논의들은 안병희(1968)의 논거를 보충하거나 유정설로 설명하지 못하는 용례를 포괄하기 위한 연구에 그쳤다. 의미자질의 설정으로 유정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서정목(1977, 1978)에서의 기저에서의 관계자질인 [+concrete(구체 자질)] 설

정, 김영옥(1990)에서의 [+ agent(동작주)]가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사잇소리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연구가 있었다. 임홍빈(1981:32)에서는 중세국어 시기 이후 속격 기능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다른 방향의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사이시옷이 속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통사적 연결의 부자연성이나 불가해성을 해소하는 수단”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사이시옷만이 통사적 파격을 극복하는 단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⁶⁾ 따라서 다른 통사적인 수단과 비교하여 사이시옷만의 특징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연구 이후 사이시옷이 속격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이시옷이 속격이 아니라 다른 문법적 표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각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7)

- ㄱ. 사이시옷은 수식어 표지를 가리킨다.
- ㄴ. 사이시옷은 합성어 표지를 가리킨다.

이광호(1993)에서는 ‘-이/의’를 후행 체언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본 반면, 사이시옷은 후치사로서의 수식어 표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이시옷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선행명사의 음운 현상⁷⁾이나 선행명사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이 의미적으로 분명할 경우 사이시옷 표기가 생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속격조사라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동사 어미에 통합되는 사이시옷을 제외한 모든 사이시옷이 현대 국어의 속격조사 ‘의’로 대체하여도 동일한 의미의 적격문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고 본 점에 주목할 만하다.

권용경(1992, 1993)에서는 ‘ㅅ’을 형태소의 내부경계에서의 합성어 표지로 보았다. 뒤를 이어 권용경(2001)에서는 사잇소리의 표기 양상을 문법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통시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사잇소리의 문법적 유형이 기존의 논의되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앞으로도 사잇소리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음운론적인 특성과 속격 어미의 입장을 함께 수용하거나 일부 인정한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기문(1972), 박창원(1990)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음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던 사잇소리가 어떠한 연유로 15세

6) 관형사형 어미 ‘ㄴ, 르, ㄴ’뿐만 아니라 속격조사 ‘-이/의’ 등도 통사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본고의 입장이다.

7) 여기서 말하는 음운 현상은 사이시옷이 선행 명사에 통합되어 후행 명사를 수식하게 될 때, 후행 체언의 어두 자음이 ‘ㄱ, ㄷ, ㅂ, ㅅ, ㅈ’ 등일 경우 ‘ㅅ’이 내파화에 따라 ‘ㄷ’으로 실현되어 후행 체언의 어두 평음을 된소리로 만드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ㅅ’이 생략되어도 발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한다.

기 이전에 속격 어미로서의 기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논거에는 각자 동의하는 편이다. 즉, 15세기의 중세국어 시기는 속격 형태소의 표기가 음절말 미파화 및 중화로 인해 같은 형태의 표기를 지닌 사잇소리와 혼란을 보이는 시기이며, 통시적인 과정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음운론적인 기능을 지닌 사잇소리에 통사의미론적 기능을 지닌 사잇소리가 혼합되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사잇소리 표기는 음운론적인 특성과 속격 어미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공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함께 섞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를 추정하는 근거로 전기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한자 표기음과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사잇소리가 한 쪽으로만 특징지어지지 못하는 사례 등을 들고 있다. 게다가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음절말에 자음군 간소화나 음절말 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중성의 미파화가 사잇소리의 두 기능이 혼동되는 것에 영향을 끼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사잇소리 표기만으로 두 기능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견해는 공통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사잇소리가 분명 음운론적 특성만 지니고 있는 것과 속격 어미로서의 특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인정함에 비해서 두 기능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속격 기능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는 음운론적인 기능으로 설명하고, 반대로 음운론적인 기능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는 속격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기능의 쓰임을 밝히는 연구가 뒤따를 필요성이 보인다.

7

지금까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난 사잇소리와 관련된 논의를 크게 음운론적인 관점과 통사의미론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사잇소리의 음운론적인 기능과 음가 추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사잇소리의 문법적인 기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이미 이론적으로 사잇소리에 관한 거의 모든 가능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도 앞선 시기에 제시되었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논지를 보완하는 설명을 하는 데 그칠 뿐이다.

각각의 주장은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사잇소리 현상 및 표기를 설명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가령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유성음 사이에서의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속격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예시에 대한 설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두 관점을 통합하여 수용하는 견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두 관점에서 밝히지 못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각각의 기능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잇소리에 관한 연구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소모적인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핀 논의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논점들에 관한 사잇소리 연구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연구사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잇소리의 본질적인 기능을 밝혀나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용경(1992),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에 대한 고찰」, 『국어학논집1』 태동.
- _____(1993), 「15세기 국어 사이시옷의 예외적인 쓰임에 대하여」,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 _____(2001), 「국어 사이시옷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1947), 「龍飛御天歌 挿入子音考」, 『진단학보』 15, 진단학회.
- 김영옥(1990),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이/스’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시경학보』 8, 탑출판사.
- 김차균(1982), 「15세기 국어의 사이스의 음운론적 고찰」, 『어문연구』 11,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 _____(1992), 「사이스의 음운론」, 『국어학』 22, 국어학회.
- 김형규(1955), 『국어사』, 백양사.
- 박양규(1975), 「所有와 所在」, 『국어학』 3, 국어학회.
- 박종희·권병로(2010), 「중세국어 사잇소리의 표기와 기능」,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 _____(1997), 「사잇소리와 사이시옷(I)」, 『이화어문논집』 15, 이화어문학회.
- 서정목(1977), 「15世紀 國語 屬格의 研究」, 『국어연구』 36, 홍문각.
- _____(1978), 「體言의 統辭特徵과 15世紀 國語의 ‘-스, -이/의’」, 『국어학』 7, 국어학회.
- 안병희(1968),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_____(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유창돈(1963), 「ㄷ添加 現象의 研究」, 『동방학지』 7,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 이광호(1976), 「中世國語 屬格語尾의 一考察」, 『국어국문학』 70, 국어국문학회.
- _____(1993), 「중세국어 ‘사이시옷’ 문제와 그 해석방안」,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덕홍(1991), 「韓國 사이시옷의 文獻的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녕(1981),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 이승재(1987), 「속격 기능 ‘스’의 형성과정」, 『성심어문논집』 10, 성심여자대학 국어국문학과.
- 임홍빈(1981), 「사이시옷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 문화사.
- _____(1985), 『국어음운학』, 샘 문화사.
- 홍윤표(1969), 「15世紀 國語의 格研究」, 『국어연구』 21, 홍문각.